확 늘어난 정시…대입 불공정 논란은 여전

2022학년도 대입전형
교육부 '정시 40%' 권고 수용
서울 16개 대학 대폭 늘려
일부 "수능 줄세우기" 비판

이른바 '상위권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 소재 인기 대학들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30~40% 수준으로 늘렸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특정 전형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시 40%' 교육부 권고에 서울 16개 대학 정시 29%→37.6%=대교협의 이번 발표는 대학들이 교육부의 방침을 잘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시 확대 대상으로 지목된 16개 대학 중 9곳이 교육부 권고에 따라 2022학년도에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시 30% 이상은 16곳 모두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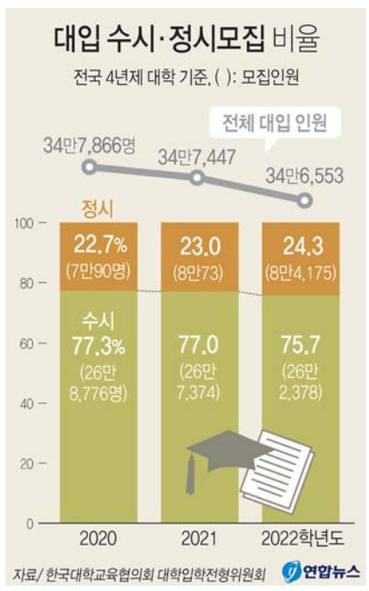
정시 비율을 10~20%포인트 이상 급격히 늘리기로 한 대학도 있다. 고려대의 경우 2021학년도 정시 비율이 18.4%인데 2022학년도에 40.1%로 늘리기로 했다. 1년 만에 정시를 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경희대(25.2%→37.0%), 동국대(31.2%→40.0%), 성균관대(31.0%→39.4%), 연세대(30.7%→40.1%), 한양대(29.6%→40.1%) 등도 정시를 1년 만에 10%포인트 가량 늘리기로 했다.

대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서울대 역시 정시 40%를 조기 달성하지는 않았지만, 정시 비율을 올해 21.9%에서 내년 30.1%로 8.2%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다만 대학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정시 비율을 늘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교육부가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꼽히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정시 확대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대입 정시 비율이 한층 늘어날 듯 … 더 공정한지는 여전히 물음표=이에 따라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에는 대입 정시 비율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시 전문가들은 2023학년도에 주요 대학이 정시를 40%로 늘리면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수시 전형에서 충원되지 않아 정시에 포함해 뽑는 모집인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2023학년도부터 '정·수시 반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도 수능이 학종보다 더 공정한지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있다.

상당수 교육학자는 "수능이 한날 한시에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는 점에서 일견 더 공정해 보이지만, 획일적 일제고사는 부모 소득이 높고 사교육을 더 받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기회의 형평성으로 보면 더 불공정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 교사 단체들은 지난해 정시 확대가 발표되자 성명서를 내고 "전국 모든 초중고를 참담한 수능 배치표 체제로 되돌리는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정시 확대가 특목·자사고와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대입에서 학종이 대세가 되면서 내신 경쟁이 치열한 자사고·외고와 강남 일반고가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정시 확대로 이들 고교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황금연휴 대비 코로나19 방역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29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시민의숲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북구보건소 방역반원들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서구 '음식점 춤 허용 조례' 폐지 대신 개정…또 업소 봐주기?

광주 서구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로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폐지 여론이 높았던 '일반음식점 춤 가능 조례'가 폐지 대신 개정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표준안보다 완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해 구의원들이 시민의 안전보다는 업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다.

광주 서구의회는 29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전면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춤허용 업소 지정 신청시 세부 영업장 평면도 제출 의무, 객석 밝기 30럭스 이상 유지, CCTV 의무 설치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또 임의조항이었던 구청장의 연 2회 이상의 지도감독이 의무조항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정부 표준안에 따른 '특수조명 설치 금지'를 누락했고, '객석 밝기 60럭스 이상 유지' 조항은 30럭스로 완화했다. 조례 폐지는커녕 정부 표준안보다 완화된 안전기준으로 개정되면서 의원들이 업주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구청측이 정부 표준안(특수조명 설치 금지, 객석 밝기 60럭스 이상 유지 등)을 적용한 개정안을 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으며,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폐지안도 "기존 업소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부결된 바 있다.

이날 개정안 표결은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거수가 아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지역특화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나주혁신산단 인재육성 실무협의

전남교육청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9일 나주혁신도시 빛가람호텔에서 나주혁신도시관련 산업 인재양성을 통한 상생체제 구축을 위해 '나주혁신산단 지역인재 육성 산·학·관 실무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남혁신도시지원단, 나주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에너지밸리혁신산단 입주기업대표, 전남도의회 의원, 나주시의회 의원 등 20여 명의 실무위원이 참석해 혁신산단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산업체 동향 및 인력양성 정보 공유, 학생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고, 5월 중 나주혁신산단 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관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학생들은 나주혁신도시에 취업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산·학·관 협력의 선순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동구, 코로나 건강취약층 전화모니터링

2주 1회…만성질환 등 관리

광주시 동구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과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동구는 평소 만성질환예방과 주민들의 능동적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악 및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코로나19로 가정방문 대면 건강관리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은 기저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등 코로나19 위험군이 대부분이라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예방관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모니터링은 2주에 1회 이상 전화통화로 실시되며, 건강 이상이 의심되면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 또는 의료기관 연계 등 추가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재가암환자 및 요실금환자 등 방문이 불가피한 대상자는 비대면 방식으로 기저귀 및 암환자영양식 등의 물품을 가정에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 민방위 5년차 이상 '사이버 교육'

광주 남구가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비상 소집훈련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상·하반기 2번에 걸쳐 운영된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5월4일부터 7월3일까지이며, 하반기 교육은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각각 2달씩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민방위 5년차 이상인 대원 7382명이다.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훈련방법 다양화를 통해 교육 훈련 이수율을 높이고, 비상 소집훈련 대신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 직장 생활을 비롯해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민방위 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PC와 스마트폰으로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또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www.cmes.or.kr)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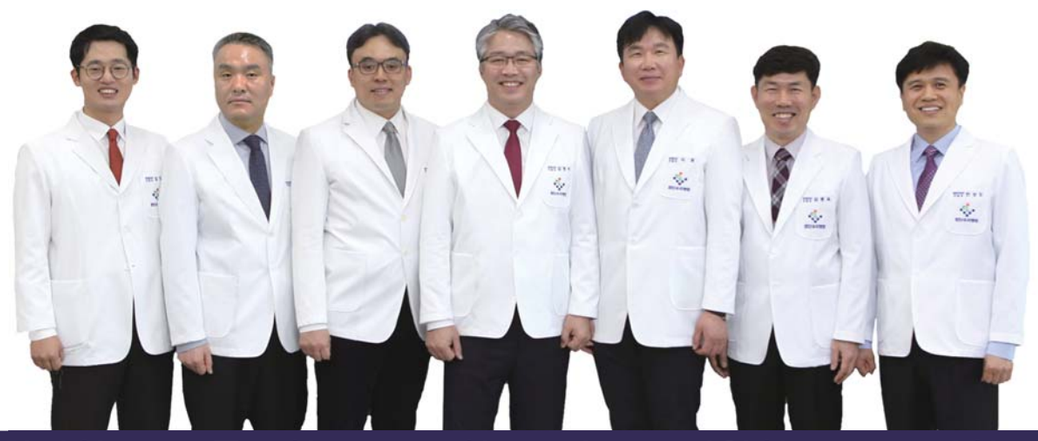
동강대, 내달18일부터 실험실습 대면수업

동강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강의 기간을 연장하고 실험실습 대면 수업은 5월18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동강대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침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고 차질 없는 학사 운영을 위해 실험실습이 필요한 학과의 경우 5월18일부터 대면수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대면 수업 시점을 1주일 전·후로 탄력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동강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더욱 강조됨에 따라 당초 5월6일 예정된 등교일은 무기한 연기하고 온라인 강의를 연장하기로 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